

# 서해안 지자체의 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방안

박인성(중국 浙江大學 도시관리학과 교수)

## 1. 문제 제기

우리의 서해 바다(중국에선 황해와 동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환발해만지역(遼寧-北京-天津-河北-山東)과 장강삼각주지역(江蘇-上海-浙江)은 중국내에서도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생산기지, 내수시장 개척, 국제 금융 및 무역 등 고급서비스 분야 등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고, 급속한 속도로 성장 및 발전동력을 창출해 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책 지원이나 서울과의 의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중국책략을 주도하면서 한-중 지방간에 지역간, 기업간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해안지역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인식하에, 최근 중국의 발전동향을 고찰하고, 그 바탕위에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서해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우위와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의존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對중국 전략을 수립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직접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을 모색, 구상해 보고자 한다.

## 2. 중국 경제와 한-중 교류 발전동향

### 1) 중국 경제동향과 전망

-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 지속
  - 2012년에는 GDP 8조2563억 달러로 전년대비 7.7% 성장했고, 2028년경 중국의 GDP가 33.5조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32.2조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6156달러
  -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소비지출이 늘어 내수시장 형성 및 발전이 본격적 진행 시작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도시화, 중서부 지구 발전을 통한 내수확대,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기술혁신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20년간 6~8% 수준의 성장 유지할 것임

**<표 1> 중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2005-2012)**

	2005	2007	2009	2012
GDP(억 \$)	22,682.54	35,213.53	49,380	82,563
1인당 GDP(\$)	1,732	2,652	3,687	6,156

자료: 2013中國統計年鑑

- 2013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2,59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8% 증가
  - 일본을 제외한 미국, EU, ASEAN과의 교역 모두 증가.
  - 중국 국내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의 대외무역이 급속히 성장함. 2013년 지역별 대외교역액을 살펴보면, 중부지역(전년대비 13.6% 증가)과 서부지역(17.7% 증가)이 크게 성장한 반면, 동부지역은 6.6% 증가
  - 廣東, 江蘇, 上海, 北京, 浙江, 山東, 福建 등 7개 省·直轄市の 대외교역 총액(3.29조 달러)이 전체 교역총액의 79%를 차지함.
- 무역형태별로는, 일반무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가공무역은 증가 속도가 약화됨.
  - 일반무역은 2.2조 달러로 전년대비 9.3% 증가, 반면, 가공무역은 1.36조 달러로 1.0% 증가 (2012년에는 3.2% 성장)
- 전기기계제품과 노동집약제품의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
  - 전기기계제품 수출이 1조2,655억 달러로 전년대비 7.3% 증가.

- 직물, 의류, 가방, 신발, 완구, 가구, 플라스틱 제품 등 7대 노동집약제품의 수출은 4,618억 달러로 10.3% 증가함.
- 소비재와 자원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
  - 소비재 수입액은 2,323억 달러로 전년대비 24.6% 증가,
  - 원유 2.8억 톤(전년대비 4.0% 증가), 철광석 8.2억 톤(10.2% 증가), 석탄 3.3억 톤(13.4% 증가) 등을 수입함.
-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현황은 투자비중에 있어서 서비스업이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을 추월.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FDI 총액 1,175.9억달러중 서비스업에 투자된 금액이 614.5억달러(전년대비 14.2% 증가)로 52.3%.
- 향후 중국은 자본유입 대국에서 자본수출 대국을 겸하게 될 것
  - 향후 1~2년 내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
  - 2013년말 기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901.7억불로 외국인 직접투자와의 차이는 200억 달러에 불과함.
- 맥킨지 세계경제연구소(MGI)에서는 중산층의 등장으로 인하여 2025년 중국은 세계 3대 소비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2025년 중국 도시거주민의 총 가처분소득은 22.6조 위안에 이를 것이며, 이 중 상위 중산층은 전체 약 61%로 13.6조 위안의 구매력을 가진 소비주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주민 소득 증가 추세와 함께 소비성 지출경비의 내용 및 구성도 교육, 문화, 관광을 포함한 오락, 여가활동 관련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2〉 중국의 시기별 구매 희망 상품**

시기	품목
1960-70년대	자전거, 재봉틀, 손목시계
1980년대	컬러TV, 냉장고, 세탁기+선풍기, 카세트
1990년대	전화기, 에어컨, 비디오+음향기기, 전자렌지
2000년대	컴퓨터, 주택, 자동차+실내장식, 관광

자료: 지만수외(2008)

## 2) 중국의 도시화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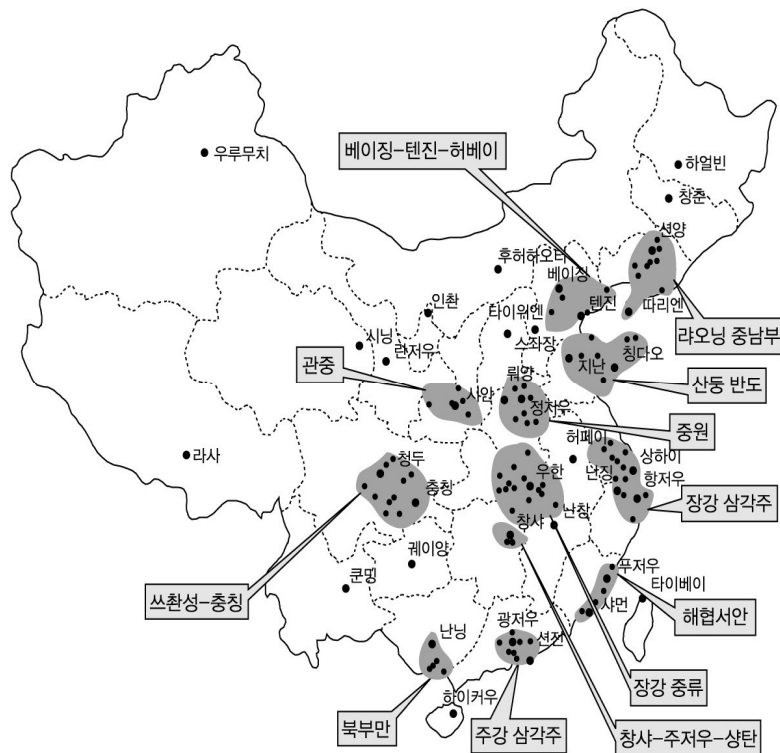
### ① 도시화 동향

- 2011년 말에 인구 도시화율이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 섰고, 2012년 말에는 52. 6%로 증가
  - 도시화 진행 곡선궤도의 급상승지점에 진입했고, 이 같은 도시화 및 도시발전 방향과 이로 인한 국토공간구조의 형성 및 변화추세는 내수시장 개척과 투자전략지역 선정, 그리고 한 반도와의 연결교통망 전망 및 구상을 위한 중요한 판단기초가 될 것임.
  - 향후 상당기간 급속한 도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 특색의 도시화”, “신형 도시화”, “사람 위주의 도시화” 와 동시에 신형 공업화, 농업 현대화가 최대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 해방되어 상향식으로 작동한 집체기업, 가족기업, 상업주체와 시장의 활력이 결합된 장쑤성(江蘇省) 남부의 향진기업 발전과 저장성(浙江省)의 원저우(溫州)와 이우(義烏)에서 발흥한 사영기업(私營企業)과 상업 발전을 통한 상향식 지역경제발전 및 도시화 추진모델이 발생한 지역이 모두 우리 국토 서남부와 마주 보고 있는 장강삼각주지역(중국 동부연해지구의 중심부)에 속함

### ② 주요 발전축 및 도시군 형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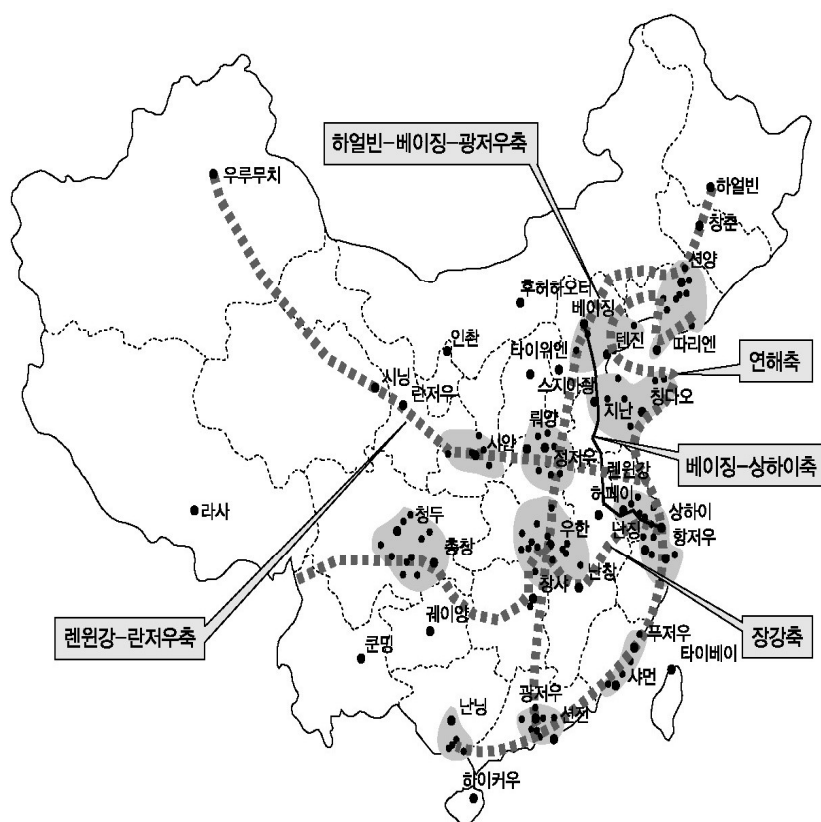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연해지역 경제특구 및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점(點)－축(軸)－면(面)－망(網)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내륙 거점 도시로 연계, 확대되어 왔으며, 교통연결축인 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내륙수운 통로인 주요 하천을 따라 개발축이 형성, 발전중
  - 1980년대: 동남부 연해지역 주강삼각주지역 일대에 경제특구를 설치·운영, 이어서 연

- 해지역 주요 항구도시들을 연결하면서 북상.
- 1990년대: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 2000년대 이후: 베이징 중관촌과 톈진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만 지구로 이동, 확산
- 각 지구별 주요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군(城市群) 및 도시간 네트워크(網)가 형성 발전하면서, 지역간 경쟁이 단일 도시간 경쟁에서, 도시권 지역 전체 간의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중국 전국에서 도시군으로 형성 및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시밀집지구 종류가 총 70여개에 달함.(刘勇, 2009: 55)
- 이중 상하이-난징(南京)-항저우(杭州)축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도시군과 홍콩-선전(深圳)-광저우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삼각주 도시군, 그리고 베이징-톈진축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도시군이 비교적 성숙도가 높고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군으로 주목 받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들 “3대 도시군” 지구 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시해야 할 곳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연계가 밀접한 산둥반도와 랴오닝 중남부 도시군을 포함한 “5개 도시군” 과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지린성의 창춘-지린-투먼 도시군이라 할 수 있음.
- 신형 도시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기존의 동부 연해지역에서 권역별 중심도시 및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도시군 형성 및 발전이 촉진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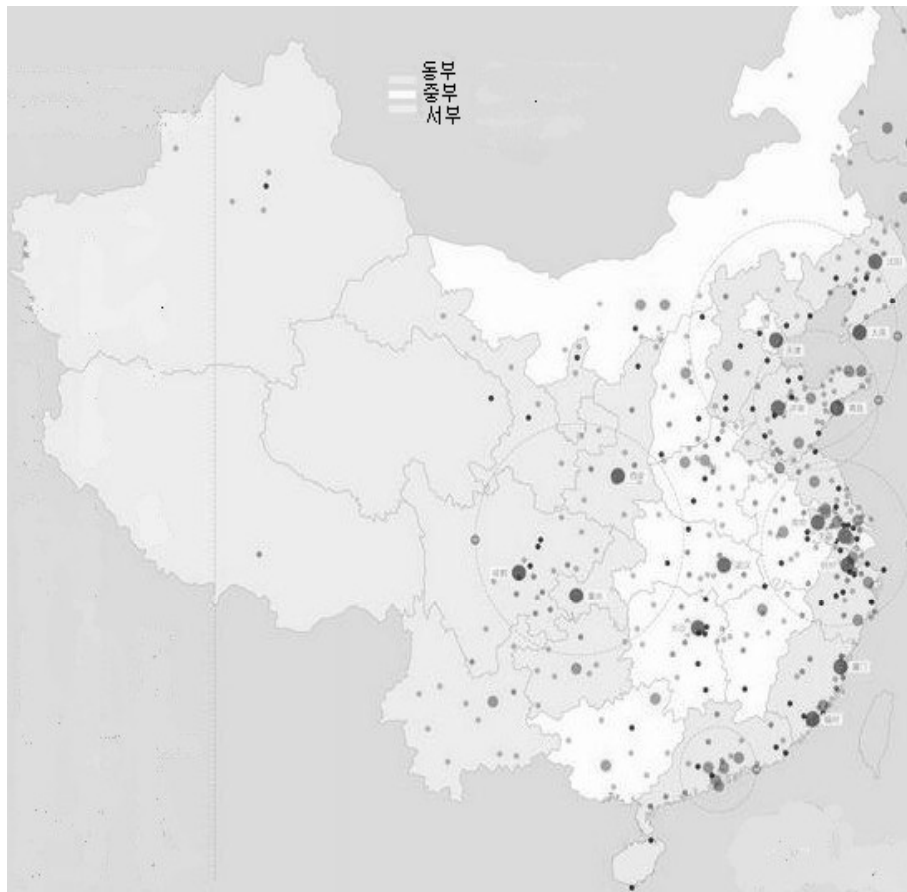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도시군 분포현황

- 철도 및 도로 건설
  - 철도 총연장이 2008년 79,700km에서 2012년말 98,000km로 증가(고속 철도는 1,400km에서 9,400km로)
  - 칭하이-티벳간 철도 396km 완공(2006. 7)
  - 베이징-선전간 고속철도 2,323km 완공(2012. 12)
- 공항: 2008년 158개에서 2012년 183개로 25개 증가
- 고속도로 총연장: 2008년 60,300km에서 2012년 말 95,900km



○ 투자환경기준 도시 등급 구분

- 정치·문화 중심지인 수도 베이징과 경제중심도시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포함해 총 19개의 1선 도시가 지정됨.
- 1선 도시 15개: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우한(武漢), 톈진(天津), 시안(西安), 충칭(重慶), 칭다오(靑島), 선양(瀋陽), 창사(長沙), 다롄(大連), 샤먼(廈門), 우시(無錫), 푸저우(福州), 지난(濟南) 등.
- 톈진, 충칭 등은 직할시로 정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고 중산층 규모가 비교적 큼.
- 청두, 항저우, 우한 등은 풍부한 교육자원과 문화유산 및 편리한 교통노선을 갖추고 있어 지역 내에서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
- 그 밖에 주요 대기업들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받는 도시들이 1선 도시에 포함됨.



<그림 3> 등급별 도시 분포도

주: (파란색) 신규 1선, (하늘색) 2선, (검정색) 3선, (진회색) 4선, (연회색) 5선

출처: 제일재경주간(第一財經週刊)

### 3) 중국인 출국관광 동향

- 지역별로 경제, 문화, 사회, 민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고 특성이 뚜렷한 거대국가 중국에 대한 지역별 관광객 특성과 시장별 세분화 전략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필요.
- 2013년 중국인 출국관광객수는 9,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해외소비도 20% 증가한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 4위 출국관광 송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출국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는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태국 등이며, 이 중 70% 이상이 홍콩과 마카오임.
  - 2006년 이후 한국을 선택한 중국인 출국 관광객 수는 순위는 낮아졌으나 그 수는 해마다 증가
  - 2008년에 한국 입국 중국인 관광객 137만 명으로 중국의 출국관광 목적지중 5위를 차지
  - 2012년 방한 입국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입국관광객수를 추월, 1위 차지

〈표 3〉 중국 10대 출국관광 목적지

순위	2006			2007			2008		
	목적지	출국자 (만 명)	비중 (%)	목적지	출국자 (만 명)	비중 (%)	목적지	출국자 (만 명)	비중 (%)
1	홍콩	1433	43.6	홍콩	1614	39.4	홍콩	1756	38.3
2	마카오	989	27.3	마카오	1211	31.2	마카오	1552	33.9
3	일본	128	3.6	일본	146	3.6	일본	156	3.4
4	한국	110	2.7	한국	131	3.2	베트남	146	3.2
5	태국	77	2.7	베트남	92	2.2	한국	137	3.0
6	러시아	72	2.5	러시아	74	1.8	러시아	79	1.7
7	미국	64	1.9	태국	72	1.8	미국	78	1.7
8	싱가폴	56	1.7	미국	71	1.7	싱가폴	71	1.6
9	베트남	51	1.5	싱가폴	65	1.6	태국	62	1.4
10	말레이시아	44	1.1	말레이시아	57	1.4	말레이시아	62	1.4
총합	3,452			4,095			4,584		

자료: 中国旅游统计年鉴

- 중국인 출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10대 목적지, 10대 신흥 목적지, 10대 가족관광 목적지, 5대 자유여행(自助游)목적지, 5대 도서관관 목적지, 10대 허니문 관광 목적지와 10대 장려관광 목적지(会奖旅游目的地)는 <표 4>와 같다.

**<표 4> 중국 출국관광객의 10대 인기 목적지**

출국관광 목적지	신흥 목적지	가족관광	장려목적지	허니문여행지
호주	영국	호주	호주	호주
프랑스	이집트	영국	영국	지중해
독일	아일랜드	지중해	프랑스	스타크루즈
홍콩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홍콩	홍콩
이탈리아	필리핀	프랑스	마카오	일본
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홍콩	네덜란드	몰디브
마카오	남아프리카	싱가폴	필리핀	네덜란드
싱가폴	스페인	<b>한국</b>	Cruises	<b>한국</b>
<b>한국</b>	호주	스위스	싱가폴	스위스
태국	-	스타크루즈	태국	로마

자료: 中国出境旅游网, 中经网

- 중국 국민의 출국관광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했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인 출국관광객 수는 1997년 이래 매년 증가폭이 거의 100만 명 이상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임.
  - 1,000만 명을 돌파한 2000년 이후, 거의 2년마다 1,00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3년에는 2,022만 명으로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여 아시아 최대의 출국관광 국가 위상을 차지하였음.
-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정식으로 개방한 중국 국민의 출국관광 목적지는 136개 국가와 지역에 달하고, 이 중 정식으로 중국 국민의 출국관광업무를 시작한 곳은 95개소이다.

〈표 5〉 중국인 출국관광 통계(1997~2008년)

(단위:만 명)

년도	출국수	증가율 (%)	公的 출국	증가율 (%)	私的 출국	증가율 (%)
1997	532.39	-	288.43	-	243.96	-
1998	842.56	-	532.53	-	319.02	30.80
1999	923.24	9.60	496.63	-5.1	426.61	33.70
2000	1,047.26	13.43	484.18	-2.5	563.09	31.99
2001	1,213.4	15.9	518.77	7.2	694.54	23.3
2002	1,660.23	36.8	654.00	26.1	1,006.00	44.8
2003	2,022.19	21.8	539.65	-17.5	1,481.09	47.2
2004	2,885.00	42.7	579.40	7.4	2,298.00	55.16
2005	3,102.63	7.5	588.63	0.2	2,514.00	9.40
2006	3,452.36	11.27	572.44	-2.8	2,879.91	14.55
2007	4,095.40	18.6	603.00	5.3	3,492.40	21.27
2008	4,584.44	11.94	571.32	-5.25	4,013.12	14.9

자료: 연도별 중국통계연감, 중국관광통계연감

- 사적(私的)으로 출국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1998년부터 공적 사유에 의한 출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사적(私的) 사유로 인한 출국자 수는 급속히 증가(2000년에 최초로 공적 사유의 출국자 수 초과)
  - 2008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30%에 달했고, 전체 출국관광객중 87.5%를 점유했음.
- 최근에는 ‘일상적 관광에서 심도 깊은 체험관광으로 방향전환’, ‘장거리 노선의 고급, 심층 여행,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관광’, ‘자유여행과 호화여행’ 추구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중국 출국관광 5대 관광목적지 중 5위인 홍콩만이 중국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원거리 목적지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원거리 목적지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북유럽에 속한 핀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방문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0년 10월(제 1회)부터 2009년 11월(제 4회)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수뇌부 포럼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국제회의, 전시회 관람, 포상관광 및 직원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형식의 비자비(非自費) 관광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예비지도간부의 해외 저명 대학과 기구에서의 연수계획을 제정했고, 일부 성(省), 직할시도 일련의 연수 및 고찰계획을 제정했으며, 향후 이 같은 추세와 행태는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초기 단계의 '낮은 가격, 낮은 품질, 촉박한 일정 등을 벗어나 한 단계 높아졌고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음.
- 최근에는 휴양 섬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지역 역시 기존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남아프리카와 호주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몰디브, 모리셔스로의 신혼여행, 황혼여행, 호주의 음악여행, 네덜란드의 화훼여행과 스파여행, 알프스 산지 여행, 크루즈 여행 등.
-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비즈니스, 문화영역 등의 왕래가 날로 빈번해지면서 사업 및 공무 관광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음.
- 국제회의관광, 전시회관광, 포상관광, 시찰관광, 업무연수, 사회단체 교류 등의 관광 유형을 포함한 사업 및 공무 관광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중국 전시회 및 교역 활동, 중국내 판촉활동 방안 등 적극적 검토 필요.

#### 4) 신형 도시화 전략과 삼농문제

- 도시화 확대, 도시화의 과정에 생태문명 이념 융합
- 도시화를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이며, 내수 확대를 위한 잠재력”으로 간주
-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四化同步” 정책 추진(제18차 당대회 보고)
- 농민-농촌-농업(3농) 문제는 계획경제체제하의 중공업과 도시 우선 발전정책, 도농간 분리정책 등에 기인
- 2004년부터 11년 연속 중앙1호 문건에서 3농문제 해소대책 강조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는 농업에, 난관은 농촌에, 관건은 농민에 있다”
- “농업의 기초적 지위, 식량안보가 보장되어야 공업화·도시화·경제발전이 가능하다”
- 四化同步: 공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함께 발전시켜 도농 일체화

## 발전 지향

- 2014년, 중공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중앙 1호 문건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 농업현대화의 빠른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향후 농촌 및 농업 관련 정부업무의 기본방향 제시.
- 국가식량안보 보장체계 개선, 농업지원 보장제도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장기적 체제 구축, 농촌지역 토지제도개혁 심화, 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축, 농촌지역 금융제도 혁신, 도농 통합발전 체계 건설, 농촌 관리체계 개선 등(총 8개 부분 33개 조항).

## 3. 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1) 우세 조건과 잠재력

- 우리 서해안 지역과 마주 보고 있는 중국의 동부연해지구 3개 직할시와 5개 성급 지역 대부분이 중국내 1인당 GDP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핵심 경제발달 지구임.(河北省만 15위)
- 이 같은 지리적 문화적 우세 조건에 대한 인식과 활용 부족



<그림 4> 한·중 양안지역의 주요 전략개발축

<표 6> 황발해 연안지역 중국 省市 개황(2012년)

	인구 (만명)	면적 (km <sup>2</sup> )	GDP(억원)			1인당 GDP	
			총액	공업+건설업	3차산업	元(달러)	전국 순위
天津	1413	11760	12893.9	6663.8	6058.5	93173(14760)	1
北京	2069	16411	17879.4	4059.3	13669.9	87475(13857)	2
上海市	2380	6341	20181.7	7854.8	12199.2	85373(13524)	3
江蘇省	7920	102600	54058.2	27122.0	23518.0	68347(10827)	4
浙江省	5477	101800	34665.3	17316.3	15681.1	63374(10039)	6
遼寧省	4389	147500	24846.4	13230.5	9460.1	56649(8974)	7
山東省	9685	157052	50013.2	25735.7	19995.8	51768(8201)	10
河北省	7288	187693	26575.0	14003.6	9384.8	36584(5795)	15

주: 1) 중국내 31개 성(省)급 지방중 1인당 GDP 순

2) 황발해 연안 지역외의 성급 지역중 1인당 GDP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성은 內蒙古자치구(5위), 廣東省(8위), 福建省(9위) 임.

3) 2012년 인민폐 대 달러 평균환율 100달러(USD) = 631.25元(2013中國統計年鑑: 224쪽)

4) 남한 국토면적은 약 10만km<sup>2</sup>로 浙江省과 면적은 비슷하나, 인구는 浙江省 인구증가율이 높음.

## 2) 한중 지방정부간 규모 차이에 대한 재인식

○ 교류 대상 파트너 지역과의 규모의 차이에 대한 재인식과 전략 수정, 실리 추구를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접근 필요

– 저장성(浙江省)을 예로 들면, 인구 규모(2012년말 5477만명)와 행정구역 면적(10만 1800km<sup>2</sup>)이 우리나라 전체 규모보다 크고, 2012년 1인당 GDP가 63374위안(1만 39달러)으로 중국내 성급 지방정부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교류 및 합작 추진 시 저장성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지급시 단위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선택하고 역량과 노력을 집중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저장성을 사례로 성내 지급급 시(地級市)의 주요 현황을 정리한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장성내의 11개 지급시중 10개 지급시가 모두 인구 규모 250만인 이상이다.(총남 인구 약 203만인)

– 저장성의 수도인 항저우(杭州: 701만인)시를 포함하여, 닝보(寧波: 578만인), 원저우(溫州: 800만인), 타이저우(台州: 591만인) 시가 모두 인구 500만 이상의 대도시이고, 산하에 수개의 현급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충청남도의 중국 사무실 소재지 선정의 전략적 고려?

<표 7> 저장성내 지급시(地級市) 현황(2012)

	인구(市區) (만명)	면적 (km <sup>2</sup> )	1인당GDP(元) *( )안은 USD	공업생산액 (億元)
杭州	700.5(445.4)	16596	111758(17704)	3168.8
宁波	577.7(226.1)	9817	114065(18070)	3170.1
溫州	786.8(145.8)	11788	45906(7272)	1625.0
台州	590.6(156.9)	9411	49438(7832)	1273.6
金華	470.6(93.9)	10941	57694(9140)	1164.5
(義烏)	75.3	1103	107420(17017)	(283.8)
紹興	440.8(65.6)	8031	82966(13143)	1751.8
嘉興	344.5(84.8)	3915	84080(13320)	1443.0
湖州	261.4(109.6)	5818	63714(10093)	796.8
麗水	262.6(39.3)	17298	34132(5407)	384.9
衢州	252.8(83.1)	8841	38476(6095)	442.2
舟山	97.2(70.3)	1440	87883(13922)	295.8

주:1. 도시인구는 2012년말 현황, 기타 2009년말 현황

2. 충남: 인구 약 203.3만명, 행정구역면적 약 8600.2km<sup>2</sup>

자료: 2013浙江統計年鑑, 2010浙江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 3) 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중국과 직접 교류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서울-수도권 의존과 종속의 틀을 돌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리적 우세를 적극 활용.
  - 중국의 경제발달 지구인 동부연해지구내 환발해지구와 장강 삼각주지구내 지방정부와 선택과 집중, 밀착 교류협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발전 돌파구 개척
  - 이를 실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체제 (가칭) “한중 지역연구센터” 를 충남연내에 건립하고, 전국 최고 수준과 위상의 對중국 전략 조사연구 및 교육기지로 육성, 발전 추진
- 對중국 전략 수립과 추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진흥과 발전의 돌파구를 탐색, 발굴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기지 건립 운영
  - 도(道)가 주도하여 충남발전연구원 부설기구로 (가칭) “한중 지역연구센터” 설립
  - 한-중, 중-한 양방향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관광, 산업, 부동산(투자/중개)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와 중국 현지 네트워크 개척 및 관리 등 충남도의 對 중국 전략 수립 및 실무 주도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국 최고 수준의 경제발전지구인 환발해지구와 장강삼각주지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구내 성(省)급, 시(市)급 지방정부와 기업, 학연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지구의 경제성장 동력을 흡수하고 발전의 흐름을 타면서,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對중국 전략 수립을 주도하는 역할과 위상 확보

-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지역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한중 지역간 교류협력 전략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연수, 교육 기능 확충
  - 지역경제를 포함한 교육, 문화, 관광, 부동산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연결한 지역발전동력 창출방안 모색
  - 관광, 부동산, 지역개발 분야의 한중협력, 중국 경제 및 통상, 투자환경 등으로 연구 조사 범위 및 분야를 확장시켜 가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특성화 연구 및 교육 연수기구로 발전 지향.

#### 4. 마침글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對중국 책략과 연결하는 틀 속에서 찾기 위해, 중국의 발전동향을 도시화 및 발전축 형성, 출국관광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 정리하고, 그 바탕위에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對중국 지리적 우위와 당면하고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와 실천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부족하고 거친 내용이지만, 이글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증대되고 있는 자신의 특화 잠재력과 지역발전 기회를 재인식하고, 한중 지방간 교류협력 전략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박인성, 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 아카데미, 2009
- 박인성, 2011, ‘중국경제성장에 따른 전남도 대응체계 구축방안’, 「녹색전남」(통권 제70호), 2011.6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outline/overview/index.jsp>
- 刘勇, 2009, “我国城市群演进轨迹与前瞻”, 「区域与城市经济」, 2009年第8期. 北京:中国人民大学书报资料中心.
- 지만수외, 200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